

건강의료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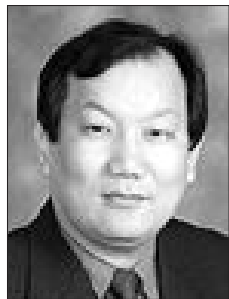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

헬리코박터와 위장질환

조선대치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센터

국내업체 10여곳과 공동연구 협약

조선대치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김수관·사진·이하 임상센터)가 국내외 유수의 의료기기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치과전문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있다.



김수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장은 "치과 의료기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산 의료기기 사용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면서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실시간 임상시험 등을 하는 선진국 수준의 센터 구축으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선대치과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지난해 2월 치과 임플란트를 개발하고 시판하는 회사인 (주)덴티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기기를 개발하고 동물 및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네오바이오텍, (주)유한양행, (주)다림티센 등 10개 회사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임상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과 임플란트·골이식재, 차단막 등 성능 평가와 임상시험을 통한 보건복지 및 경제적 이득 창출을 꾀하는 한편 치과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제균치료뎀 위궤양 재발 5% 이하로

위 안에는 소화를 위해 분비되는 강산 때문에 세균이 살수 없을 것으로 생각돼왔다. 그러나 지난 1983년 호주 의 위생과 마살박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이하 헬리코박터균)가 경구감염을 통해 위점막병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위십이지장 궤양, 위암, 위 말트림프종 등의 위장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혈액질환(빈혈, 자반병), 동맥경화증, 편두통, 불임, 만성두드러기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는 등 많은 질환의 원인 인자로 지목되고 있다.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최근 열린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에서 류중선 교수가 헬리코박터와 관련된 질환 및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헬리코박터는 정말로 흔한 감염균인가? = 헬리코박터는 전세계인의 50% 이상이 감염되어 있는 매우 흔한 감염균이지만 경제력이 낮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사람에서 주로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60%정도 감염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생상태의 개선등으로 감염빈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감염은 수돗물, 분변 등에 있는 균이 입을 통해 전염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전파가 쉽게 이루어 질수 있다.

◇헬리코박터 관련 위장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면 거의 100%의 환자들이 활동성 위염을 일으키며, 상피세포에 백혈구가 침윤되고, 여러 독성물질을 분비해 위점막에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염증매개물질을 통해 염증반응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이되면 위점막에 미란이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개 내시경 소견은 정상소견을 보인다. 감염 초기에 명치부의 가벼운 통증이나 몸살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개는 저절로 좋아진다. 그러나 한번 감염이 되면 세균은 오랫동안 위점막에 존재하면서 만성표재성위염을 거쳐 만성위축성위염으로 진행된다. 만성으로 진행해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헬리코박터 감염은 위십이지장궤양 발병의 제일 중요한 원인인자이다. 궤양환자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게 관찰되고 헬리코박터를 치료함으로써 재발률을 5%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헬리코박터는 소화성궤양의 발병과 치료에 밀려야 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오래 지속되면 염증이 진행되어 위점막의 위축성변화 및 장형화생등의 조직변화가 수반되고, 속주의 유전적인 인자나 식이 같은 환경인자들에 의해 위산암, 위 말트림프종 등의 발생이 증가한다. 아직도 확실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균주의 독성인자(CagA, VacA, BabA, OipA 등), 개인의 면역체계나 유전적인 다형성 등이 관여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팀은 위장질환없이 입냄새가 나는 사람의 입에서 헬리코박터균의 DNA를 검출했다고 보고했으며, 균이 검출된 사람에서 치주질환의 빈도가 높아 헬리코박터와 치주질환과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어떻게 진단하는가? = 헬리코박터의 진단은 내시경

전세계인 50% 이상 감염 추정 항생제 병합투여 균 80% 제거 위 말트림프종 80%까지 완치

으로 채취한 조직을 이용하는 침습적인 방법과 혈액, 호기가스 그리고 대소변을 이용하는 비침습적인 방법에 의해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이중 요소호기검사는 헬리코박터의 치유판정에 가장 정확한 검사로 제균 치료 성공여부를 검사하는데 이용된다. 혈액검사는 헬리코박터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대만위 선별검사에 이용되지만 과거의 감염과 현증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내시경을 시행하기 어려운 소아에서는 대소변을 이용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치료 대상은? =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대상은 헬리코박터가 양성인 1) 소화성궤양 궤양환자 2) 저등급 위 말트림프종환자 3) 조기위암의 내시경절제술을 받은 환자이다.

이외에도 2촌 이내의 가족에서 위암발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심한 위축성위염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는 제균요법을 시행해볼 수 있다. 치료효율은 20세 전후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는 어떻게 그리고 그 효과는? = 치료는 일차적으로 1~2주간 강력한 위산분비억제제인 PPI와 아목시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 비스무스, 메트로니다졸 등의 항생제를 2개 병합해 투여한다. 이러한 병합요법에 의한 균제거율은 80% 정도이나 최근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면서 치료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1차요법에 실패할 경우에는 2차요법을 시도하며 PPI와 3개의 항생제를 병합 투여한다. 이차치료에도 실패한 경우는 균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제균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환자에서 재감염률은 10% 미만이다. 항생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복통, 소변, 설사 등의 위장장애를 호소할 수 있으나 대개는 경미하다.

제균요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위염이 치료되고, 소화성궤양의 재발을 막아주며, 저등급의 위 말트림프종은 80% 정도까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제균요법에 의해 조기 위암의 내시경절제 후 재발률 3%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위암의 예방에도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류중선 소화기내과 교수>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운동처방학과 김수근 교수팀 아동 비만예방체조 개발

동신대 김수근 교수팀(운동처방학과)이 최근 보건복지부 2010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에 선정돼 '아동비만 예방을 위한 아동 건강체조 개발'에 나선다.

이 연구과제의 목표는 효용성과 지속성, 범용성 높은 체조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장기 아동들의 칼로리 소모량을 극대화시키고 근육량을 증가

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신체 성장을 돕는데 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체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한편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 연구는 전남대 예방의학교실 신준호 교수와 함께 진행되며, 오는 9월까지 체조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채희중기자 chae@

국내 중환자실 17%만 전담 전문의 배치

전남대의대 과상현교수 조사

국내 중환자실 대다수가 외형과 시스템만 있을 뿐 전담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중환자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과상현 전남대의대 교수(마취통증의학과)가 연구한 '2009년 국내 중환자실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두고 있는 곳은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국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중환자학의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전체 105곳 중 86곳 등 220개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중환자실의 구성 및 규모·근무인력·기술수준 등에 대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중환자실의 70% 이상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플러팅 의사'를 두고 있었지만 전담전문의를 두고 있는 중환자실은 202곳 중 37곳으로 17%에 불과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함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독자 서비스(062)220-0551

복 돼지 부동산: 서구 화정동 임주채육근 내 시계유관형사2층... 대표 정웅 (011)790-2811

레몬그래스: 서구 화정동 화정상업지구2층... 대표 정웅 (062)222-5445

류성통경화회의원: 북구 유성동 2층... 대표 류성룡 (062)434-7575

아베스두피탈모클리닉: 남구 봉선동 봉선 우체국 옆... 대표 최영 (062)675-0199

은월철학원: 방림동 등실실고 버스정류장 앞... 대표 최영 (062)637-7808

나라베드민턴스포츠: 북구 문흥동 문정초등학교 맞은편... 대표 최영 (062)267-2141

곰청마을: 서구 화정동 임주4거리 모이타워 뒤편... 대표 박신계 (062)371-2848

대림학생복: 북구 유성2동 금과, 금호공고 부근... 대표 박신계 (010)512-7556

홍삼프라임: 북구 유성동 말바우시에서 북구 유성2동... 대표 최희수 (062)529-3152

흑마늘항토기미술풍부이: 남구 봉선동 봉선소방서 옆... 대표 최희수 (062)675-7188

생태한마리: 서구 금호동 일신@ 건너... 대표 최희수 (062)376-0314

태성건설(주): 북구 문흥동 문산 초등학교 뒤편... 대표 최희수 (062)269-3254

(주)에스콰이어광주지점: 동구 충장로3가 흥파 맞은편... 대표 최희수 (061)222-8786

우리남청오리곤보청기: 북구 유성동 서대문로2동 2층... 대표 최희수 (062)262-0371

옛날주막국밥(현석궁): 서구 화정동 4동사무소 옆 모이타워 뒤... 대표 최희수 (062)373-8292

키움설비: 서구 유성동 호남대 앞... 대표 송정운 (062)385-5111

블타는복돼지: 문흥2구 일신@입구 삼거리... 대표 최희수 (062)265-2220

밤골의원: 북구 유성동 전대후문 맞은편... 대표 최희수 (062)265-0627

평평이상추튀김&호프: 북구 유성동 문화동 서대문로2동 건너... 대표 최희수 (062)262-1413

(주)유림: 북구 문흥동 금호APT맞은편... 대표 최희수 (062)434-5666

모시떡집: 평산구 월곡동 흑석사거리 오페라 호텔앞 뒤편... 대표 최희수 (070)547-3884

와우와우당구클럽: 북구 유성동 무등도서관거리 현대자동차대... 대표 오성근 (062)434-2121

그린인테리어: 서구 화정동 임주4거리 광주은행 뒤 편... 대표 최희수 (062)383-7203

구례식당: 북구 유성동 동신고앞 육교옆... 대표 최희수 (062)529-0071

에듀윌스: 북구 유성동 224-110 2층... 대표 최희수 (062)521-5696

들고개식당: 전남 경향청 옆 KT 앞... 대표 최희수 (010)7162-3108

김은관과학교실: 동구 유성동 유림동 맞은편... 대표 최희수 (062)263-0103

슬한잔: 북구 유성동 유림동 4거리와 데이트 사이... 대표 최희수 (062)262-1237

골든보석: 북구 유성동 187-8... 대표 최희수 (062)512-8100

자연육회본집: 광산구 월곡동 참단중학교 정문앞... 대표 최희수 (062)972-5008

에이스공인중개사: 광산구 정덕동 해남공원2동로입구... 대표 최희수 (062)951-9933

여우야 헤어클럽: 북구 문흥동 2동 사무소 옆... 대표 최희수 (062)261-3799

행랑채추어탕: 북구 문흥동 954-8... 대표 최희수 (062)268-1310

우정설렁탕: 서구 지평동 1282-2... 대표 최희수 (062)381-4174

상하이: 정동 중화요리 전문점... 대표 최희수 (062)525-1088

헤어플레이오: 북구 유성동 광산맨션 7층 정문 앞... 대표 최희수 (062)262-1237